대출금리 0.5% 오르면 중기 이자 8000만원씩 오른다

이자 내기 벅찬 '취약기업' 부담 광주 1억1000만원·전남 1억2000만원

부채비율 광주 294%·전남 257% 상위권…광주 증가폭 36%P 전국 최다

올해 은행 대출금리가 0.5% 오를 때 광주·전남 중소기업 887개사는 업체당 연평균 8000만원의 이자를 더 부담하게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는 25일 한국은행이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민다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과장이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경영 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후 예금은행 대출금리가 0.5% 오른다고 가정할 때 광주·전남 중소기업 887개사의 이자 부담금액은 업체당 평균 80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민 과장은 올 하반기 이후 시중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금리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업체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연구를 했다. 분석 대상은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또는 연 매출 50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광주 499개·전남 388개 등 비금융업 외부감사대상 법인 887개사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액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과 서비스업 기업들의 부담이 높았다.

광주지역에서 업체당 평균 이자부담 증가액은 스포츠 부문이 1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1억1000만원), 건설(1억원), 운수(7000만원), 숙박·음식(6000만원), 기계·전자/석유·화학/금속(각 5000만원), 도소매(40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에서는 숙박·음식업체가 평균적으로 1억2000만원의 이자부담이 더 늘어난다. 이어 부동산/스포츠(각 1억1000만원), 석유·화학(8000만원), 건설(7000만원), 운수(5000만원), 금속/기계·전자/도소매(각 3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취약기업 부담액은 광주 1억1000만원·전남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나며, 중소기업 평균(800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광주에서는 부동산 부문 취약기업의 이자부담 증가액이 1억4000만원으로, 평균보다 3000만원(27.3%) 더 많았다. 숙박·음식 취약기업은 7000만원, 도소매 5000만원으로 각각 1000만원씩 이자부담액이 뛰었다.

전남 취약기업 가운데는 석유·화학 이자부담 증가액이 1억9000만원으로, 평균(8000만원)보다 2배 넘게 불어났다.

취약 건설기업 이자 증가액도 평균보다 1억원 많은 1억7000만원을 기록했고, 기계·전자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66.7%(2000만원) 늘어났다.

기업자본 가운데 부채의 비중을 따지는 부채비율은 지난해 광주 294.0%·전남 257.1%로, 제주(404.3%))에 이어 전국에서 2~3번째로 높았다.

특히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294.0%로, 직전 4개년 평균(2016~2019년) 258.3%보다 35.7%포인트 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부채 비율은 191.6%로, 4년 평균(182.0%)보다 9.6%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은 올 하반기부터 현실화되고 있다.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지난 7월 2.85%에서 9월 3.05%로, 두 달 새 0.2%포인트 상승했다.

잔액 기준 대출금리도 2.82%에서 2.89%로 상승세이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1.00%가 되면 '제로(0) 금리시대'의 막을 내리게 된다.

민다한 한은 과장은 "코로나19 피해로 지역 중소기업들은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자금긴축에 대비하기 위해 납품대금을 서둘러 회수하고 결제를 연기하는 등 현금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업체당 평균 광주 9억3000만원·전남 4억6000만원의 현금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대출금리 상승에 대응해 영업활동을 개선하기 보다는 외부자금 차입에 의존하며 이자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담보가 부족하지만 기술력과 사업전망이 우수한 기업에게 제공하는 '국내은행 관계형 금융' 비중을 현 1%대에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쌀값 안정 위해 남아도는 쌀 31만t 시장격리해야"

전남 농협 조합장들 쌀 수급안정 긴급 대책 논의

전남지역 농협 조합장들이 22일 "남아도는 쌀 31만t을 선제적으로 시장격리해야 한다"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양용호 농협 광주전남RPC운영협의회장(담양 금성농협 조합장)과 전남 조합장들은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에 모여 '쌀 수급안정 긴급 대책 논의'를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남지역 농협 조곡 재고량은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이다.

지난 16일 기준 전남농협 벼(조곡) 재고는 30만5000t(RPC 4만4000t·비RPC 17만7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4%(11만t)이나 많은 양이다.

같은 기간 기준 전남 벼 재고는 2016년 26만4000t, 2017년 20만8000t, 2018년 19만7000t, 2019년 20만1000t, 2020년 19만5000t 등으로 올해가 최근 5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생산량 과다로 쌀값 하락이 예상되면서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농협으로 몰린 결과로 농협은 파악했다.

조합장들은 올해 수확기까지 과잉물량 31만t 시장 격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쌀값 조사 및 표시 단위를 1㎏으로 변경하고 신곡과 구곡 혼합 판매 근절 등 쌀 수급 관련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양용호 협의회장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로 쌀 산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해 쌀 과잉물량에 대해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t으로, 쌀 생산량이 수요량(357만t)을 초과해 31만t 정도 과잉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확기 이전에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우려로 농협 전국 및 광주·전남RPC운영협의회, 전남도, 국회의원, 각 지역 지자체에서 선제적 시장격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정부대책 발표를 보면 시장격리는 없고, 향후 쌀값 추이 등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상의 오늘 미래산업포럼

광주상공회의소는 23일 오후 2시30분 광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미래산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요구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상의가 후원하며 (유)GIVEC, 선보엔젤파트너스(주)가 주최해 'Round Table of ESG Day in Gwangju'를 주제로 열린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SK에코플랜트 안동순 그룹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카본밸류 고덕수 대표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케일 김용욱 대표의 '식용곤충 대량사육 자동화 스마트팜 구축', 인진 성용준 대표의 '연안 설치 가능한 친환경 파력발전 기술'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현황과 핵심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ESG 관련 혁신기업 대표들이 포럼 발제자로 참여하고, 발표기업의 핵심기술 사업화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며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ESG 도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광주신세계를 찾은 고객들이 1층 광장 '크리스마스 포토존'에 마련된 신세계백화점 캐릭터 '푸빌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다음 달 5일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푸빌라와 함께하는 홀리데이 어드벤처'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코스피 14일만에 3000선 회복…삼성전자 등 대형주 상승 이끌어

코스피가 22일 삼성전자 등 대형주 상승세에 힘입어 14거래일 만에 30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2.23포인트(1.42%) 오른 3013.25로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3000선 이상을 기록한 건 지난 2일(3013.49) 이후 14거래일 만이다.

이날 삼성전자(5.20%), SK하이닉스(7.17%), 현대차(4.30%) 등 반도체·자동차 대형주가 상승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797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난 8월31일(1조1229억원) 이후 최대 순매수액을 기록했다. 외국인은 선물도 1조원 가까이 순매수했다.

기관도 5670억원을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은 1조3698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13.25 (+42.23)
↓	코스닥	1032.31 (-9.61)
↑	금리 (국고채 3년)	2.018 (+0.052)
↓	환율 (USD)	1185.10 (-0.20)